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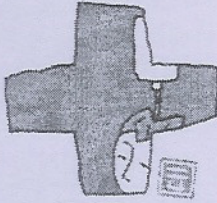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2주일
제28권 12호 (가해) 2008.2.17

[묵상]

창 너머 꽃 피고 지더니
다시 눈을 보았습니다.
고통도 예사로운
병실은 집보다 편안합니다.



달리 은총이겠습니까...
수행 중입니다.

구상렬 하상바로로·만화가

하늘과 땅, 햇살과 꽃
구름과 바람, 낙엽과 눈 ...
해마다 돌아오는 은혜의 사순절!
기도와 자선과 금식의 십자가를 만들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네.
이제껏 내 고통이 세상에서 제일 커 보이고
내 집안 어려움을 아무도 몰라준다 여겼건만
병원에 와서 보니
내 아픈 것 아무 것도 아니로구나.
함께 나누고 보니
우리 집안 어려움도 어느새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사순절은
더불어 변해가는 은총의 시기로구나.(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명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박상대 파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중돈 스테파노, 김경옥 데레사, 구기순 마리아 이양구, 이옥순 마리아 (생)문재원 클로틸다, 최석원 안드레아와 태훈 야오스딩 홍베드로와 홍요셉, 안재만 다니엘과 헤란 데레사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김중돈 스테파노, 이영자 마리아, 김형배 토마스 이현호 요한, 황만근 베드로, 이준주, 이옥순 마리아 김학길 다미안, 김용팔 다두, 오진관 이냐시오 허순심 레지나 (생)이종민 요셉, 임종택 베르나르도의 자녀들 김상억 베드로, 천남숙 리디아와 천광락 야고보 홍베드로와 홍요셉, 박진숙 엘리사벳, 윤영옥 헬레나 정열모 미카엘 가정, 홍정애 비비안나, 홍희자 마리아나 김석기 스테파노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 (Genesis) 12,1-47
화답송	◎저희가 당신께 바랐던 그대로, 주님 여여뻘 여기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전례서가 64, 사순 제2주일 가해 참조> ○주님의 말씀이 옳으시도다, 그 하신 일마다 진실하도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정을 즐기시고, 그 사랑은 땅에 가득하도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들, 당신 자비를 바라는 이들 위에 있나니.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제 그들을 살게 하시도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나니, 우리 구원 우리 방패 주님이로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랐던 그대로, 여여뻘 여기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제 2독서	티모테오 2서 (Timothy) 1,8-10
복음환호송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속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왔도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 음	마태오 (Matthew) 17,1-9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58	156
봉헌	378	257,267
성체	356	283,302
파견	157	150

10.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계속)

2) 9가지 봉사의 은사 : 1코린 12,8-10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교회 안에 성령을 통하여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주시심을 믿고 있다. 성령의 은사는 세속과 거짓과 오류에 대항하는 믿는 이들의 무기이다. 신자들은 이 은사로써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교회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1코린 12,4-7)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1코린 12,8-11)

① 지혜의 말씀 은사 (gifts of the expression of wisdom) : 하느님의 지혜에서 나온 실천적인 말을 하게 하여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은사이다. 지혜의 말씀 은사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 하느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능력, 교회 혹은 개인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현듯 그 해결 방법을 알게 해 주시는 은사,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능력 등이 이에 속한다. 예수님처럼 어떤 시험을 당할 때나(마태 4,1-11; 22,15-22 참조),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을 때도(사도 4,19-20 참조)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고 상대방의 그릇됨을 깨우쳐 준다.

② 지식의 말씀 은사 (gifts of the expression of knowledge) : 이는 깨달은 바를 바르게 이해하여 지식이 되게 하는 은사이다. 예전에 알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나 지식을 순간적으로 알게 해 주시는 것도 이에 속한다. 나아가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거나 설명하거나 설교할 때 영감을 받아 말함으로써(1코린 2,13 참조),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을 초월하여 신앙의 진리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선포하는 은사이다.

◆(계속 / CBCK + 박상대 신부 제공)

거룩한 변모

사순 제2주일,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마태 17,1-2).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받으신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복음은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준다. 교회는 회개와 뉘우침의 분위기의 이 사순절 초기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사건을 배치한다. 그것은 참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회개와 뉘우침의 생활로 이 사순 시기를 보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 이 사람이 신자가 아닌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아니, 자네,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그렇다네.”

“그럼 가톨릭교회에 대해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 가톨릭교회가 어떤 곳인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 곳에 삼위일체 교리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을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여보게, 미안하네만 나도 잘 모르겠네...”

“아니, 자네, 성당에서 세례받았다고 하고선 성당에 대해 아는 것이 없잖아!”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별로 아는 것이 없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 하지만 한 가

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네. 내가 세례를 받지않고 성당에 다니지 않을 땐, 난 사회에 불만이 가득했고 항상 불평만 하고 살았다네. 또 술도 많이 마시고 나쁜 짓도 많이 했지. 그래서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항상 잔소리에, 무서운 남편, 아빤였다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나를 무서워해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지. 아내 역시 나를 참으로 많이 미워했지. 그러나 이젠 술도 끊고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지. 우리 가정 역시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네. 저녁마다 아이들과 아내는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 역시 집에 있으면 행복하거든. 이게 모두 다 성당에 다니면서 생긴 일이라네.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라네.”

때때로 나 자신에게 “내가 많이 변했구나”라고 말할 때가 있다. 특히 그 변화가 나 자신의 인격이 성숙해졌음을 느낄 땐 커다란 기쁨을 맛본다.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역시 변화와 성숙에 있다. 세례의 기쁨은 변화이기 때문이다. 내 존재의 변화, 나의 삶의 변화...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살아 있는 하느님의 말씀의 빛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내가 변화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야 한다. 나 자신이 변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어떠한 기쁨도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다.

◆고준석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명동성당 부주임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정미영 미카엘라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화영 잔다르크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유현자 안나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황지영 안젤라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반	제물봉헌자			P.V. 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가정성화와 레지오를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계시관에 기록해 주십시오.

☞ 지난 주간 합계: 3,660단 ☞ 총 합계: 253,476단

~ 구역별 사순피정 · 십자가의 길 안내 ~

◆ 구역별 사순피정

사순절을 보다 뜻깊게 보내기 위하여 성전에서 다음과 같이 사순 피정을 마련하였으니,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필기도구를 준비하십시오.

- 토런스 동, 남구역: 2월26일(화) 오후 7시~9시30분
- 토런스 서, 북구역: 3월4일(화) 오후 7시~9시30분
- 하버/카슨, P.V.구역: 3월11일(화) 오후 7시~9시30분

◆ 십자가의 길(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사순 제2주일 금요일(2월 22일): 토런스 남구역
- 사순 제3주일 금요일(2월 29일): 토런스 북구역
- 사순 제4주일 금요일(3월 7일): 하버/카슨 구역
- 사순 제5주일 금요일(3월 14일): P.V. 구역

◆ 사순절 희생 애금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 사순절 희생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3월 20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백삼위 본당 사순 판공성사 일정

- 3월12일(수)
오후 7시부터 : 참회예절(주일학교는 강당에서)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주일학교 은총시장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

- 은총시장: 3월23일(부활대축일) 오전 9시30분 미사 후
- 은총시장에 필요한 물품과 후원금을 받습니다.

◆ 주일학교 사순 피정

- 3월7일 : 오후 7시~10시,
3월8일 : 오전 10시~9일 오전 8시, 본당 사제관
- 대 상 : 7~12학년
- 주 제 : "Selfless"(나를 버려라)
- 지도신부: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 참가비 : \$10, 준비물: 슬리핑백, 세면도구
- 신 청 : 2월24(주일)~3월2일(주일)까지

◆ 고등부 신앙대회(Steubenville, San Diego)

- 주제: "Witness"
- 날짜: 7월25일(금)~27일(주일)
- 참가비: \$170, 신청마감: 2월24일(주일)까지.

◆ 백삼위 한국학교 2학기 등록

- 첫째 자녀 \$150, 둘째 자녀 \$140, 셋째 자녀 \$130
- 등록 장소: 2층 한국학교 교사실
- 문의: 한국학교 교장 이헬레나 ☎ 310-347-8765
- 2008년 SAT II 준비반 수시 모집

◆ 오늘주일(17일) 한국학교 수업 없습니다.

- President's Day 연방공휴일 연휴에 따라 한국학교 수업을 휴강합니다.

◆故 이옥순 마리아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연도

- 홍경선 율리아 자매(P.V. 3반)의 모친 이옥순 마리아님이 지난 2월5일 한국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일(17일) 오후 1시, 성전에서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강순복	강인모	국세찬	김 옥	김상억	성전헌금	강순복	강인모	국세찬	김 옥	김옥보	김정희
	김옥보	김재영	김정희	김종문	김주량	김택수		김종문	김주량	김택수	문충한	민소예	방세훈
	문충한	민소예	방세훈	손유경	신경훈	신대식		신경훈	신대식	안연숙	안태갑	오호순	이경용
	안연숙	안태갑	양은순	오호순	유인섭	이경용		이근태	이상규	이영석	이용식	이일형	이정희
	이근태	이상규	이영석	이용식	이일길	이일형		이태옥	장수창	장영진	정규숙	정열모	조준제
	이정희	이태옥	장수창	장영진	정규숙	정열모		주대중	지경수	차봉관	채양석	최귀환	최미열
	조소영	조준제	주대중	지경수	차봉관	채양석		최의수	한금순	홍안나	한길선례	김아가비도	
	최귀환	최미열	최의수	한금순	홍안나	홍윤정							
	황학수	한길선례	김아가비도	신영왜비									
	송마이클												
합계: \$5,380							합계: \$3,940						
미사헌금: \$3,010.75							감사헌금: 천남숙, 김영미, 홍윤정 부활초 봉헌: 김진희						

◆ 영화 '천국보다 긴 계단' 상영

- 2월17일(오늘 주일) 오후 1시30분, 강당(연도 후-)

◆ 제 60차 M.E. 수료자 재모임

- 오늘 주일(17일) 오후 4시, 강당
- 문의 : 오영섭 스테파노 & 지희 요안나 ☎ 310-922-1502

◆ 울뜨레아 2월 정기모임

- 22일(금) 오후 7시30분, '십자가의 길' 기도 참석 후 강당
당에서 월례모임을 갖습니다.

◆ 목요 교리반에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 새 교리반 강의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2층 교리실

◆ 성서모임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반이 개강했습니다.

- 기초반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강당
- 2단계 :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강당
-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에 있는 '거룩한독서
신청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차동엽 신부(미래사목연구소 소장)의 사순 특강

- 2월25일(월) 성전- 찬미:오후 6시30분, 강론:오후 7시
- 주제 : '무지개 원리', 영적 저서도 함께 소개

◆ 배론 청년회 사순 피정

- 2월29일(금) 오후 7시~ 3월2일(주일) 낮 12시까지
- 주 제 : "예수님과 함께 쉬자."
- 지도신부 : 김두진 바오로 신부
- 장 소 : 박배어 피정의 집
- 참가비 : \$40, 강정현 시몬 회장 ☎ 323-899-5581

◆ 글로리아 성가대원 모집

- 대상 : 소프라노 파트
- 목소리 맑고 성량 풍부한 소프라노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문의 : 지휘자 배기엽 클레멘스 ☎ 310-325-7733

◆ 2008년 교무금/성전헌금 약정서

- 교우 각 가정에 2007년 교무금과 성전헌금 납부내용을 우송하고 있습니다. 납부내용 하단에 기재된 2008년 약정서를 작성하시어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당의 예산 책정 및 운영에 매우 도움이 되오니 협조해 주십시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2월17일 : P.V. 2반 (돈까스 \$3)
- 2월24일 : 토런스 서 2반 (콩나물밥 \$3)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아나 320-3697	1	김양금 아나 518-3041	홍안나 213-385-0809 2/8(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한창주 요아킴 530-7702 2/16(토) 오후 7시
	3	한길선레 스프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프라스티카 782-1025 2/15(금) 오후 8시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박인식 토마스 953-9597 2/10(일) 오후 5시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윤선희 로사 371-9697 2/11(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2/8(금) 오후 7시30분
	2	임진희 한나 720-7898	신경숙 에스텔 613-0789 2/12(화)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이상철 213-258-7797 2/15(금) 오후 7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오세원 아타나시오 327-8035 2/8(금) 오후 7시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베스 326-2283	박종열 토마스 아퀴나스 784-0460 2/9(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김은 안나 541-5429 2/15(금) 오후 7시30분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유미 크래센시아 541-4760 2/8(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2/22(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2코린 8,9)

1. 해마다 사순시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재발견하게 하여 우리 또한 이웃에게 더 자비로울 수 있게 합니다. 교회는 사순시기에 신자들이 내적 쇠신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도와 금식과 자선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번에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인 동시에 현재 재화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극기의 실천이 되는 자선에 관하여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적 풍요에 대한 유혹의 힘과 이를 우상화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절대적 결단에 관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루카 16,13)고 확인하셨습니다. 자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이웃의 부족함에 응대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도록 일깨워 주면서 그러한 끊임없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합니다.

2.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재화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재화는 우리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가 이웃을 위해 당신의 섬리를 수행하는 청지기가 되라고 부르시는 수단입니다. 모든 물질적 재화는 그 보편 목적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재물을 소유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을 경고하셨습니다. 요한 사도의 말씀도 마음을 울립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달아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1요한 3,17)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눔에 대한 요청은 참으로 절실합니다. 곤궁하고 버려진 많은 이들에 대한 책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자선 행위이기 이전에 앞서 정의로운 의무입니다.

3. 예수님께서는 자선에 관하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마태 6,3-4)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한 선행을 자랑하여 하늘에서 받을 상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 6,1-2 참조) 예수님의 제자는 늘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개인적 보답이나 단순한 칭찬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참다운 안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전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외면적인 것이 중요시되는 오늘날 이에 대한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음에 따르면 기부는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전체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위한 내적 회개를 요구하는 대신적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4. 사도들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즐거움이 더 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사도 20,35 참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재산을 어려운 이웃과 나눔 때마다 우리는 충만한 생명이 사랑에서 오며 모든 것은 평화와 내적 만족과 기쁨의 모습을 띤 축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자선에 대해 당신의 기쁨으로 상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자선의 영적 열매에 죄의 용서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1베드 4,8)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자선을 통하여 용서받을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선은 참다운 회개와 하나님과 이웃과 맺는 화해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5. 자선은 사랑의 자비를 가르쳐 줍니다. 가난하지만 성전 헌금함에 “생활비를 모두 다”(마르 12,44) 넣은 과부의 모범은 그녀가 부의 일부나 소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 전체를 하느님께 바친 상징입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장면은 바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2코린 8,9 참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 전체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학교에서 우리의 생명을 온전한 선물로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가진 것의 일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시기의 자선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심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법칙을 결정하는 것이 물질적 부가 아니라 사랑임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선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각 개인의 능력과 여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6.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어머니요 충실한 종이신 마리아께서 신자들이 기도와 금식과 자선 행위로 무장하여 사순시기의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 영적으로 쇠신하고 부활 축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바람과 더불어 모든 이에게 사도로서 축복을 기꺼이 보냅니다.

◆바티칸 / 베네딕토 16세 교황